

■ 상록탑

# 당신이 한 표에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권경문 인문팀 취재부장

총장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 학생이 이화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2번째 직선제다. 이제 다음 주면 이화의 4년을 이끌 총장이 결정된다.

총장 선거 취재팀의 여정에도 곧 마침표가 찍힌다. 8월부터 온 힘을 쏟은 취재의 끝이다 가오는데도 왠지 마음이 흥분하지 않다.

정보제공동의 마감날인 13일 오전 11시 기준 학생 참여율은 24.7%에 그쳤다. 교직원, 교수, 동창 참여율은 모두 90%를 넘겼다. 이제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투표에 뒤늦게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정보제공동의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투표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함이다.

온라인 투표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투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고, 정보제공동의 절차까지 추가돼 번거로움이 늘었다고 이유를 찾아냈다. 하지만 정보제공동의 기간 마감까지 거의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결과다.

그러나 총장 선거 취재팀에 합류하기 전 내 모습이 떠올랐다. 학보에서는 8월부터 총장 선거 취재팀을 꾸렸다. 당시 나는 2학기 총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총장이 뽑히는지도 알지 못했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총장 선거 취재가 막연하게 거창해 보여서 취재팀에 합류했다.

그렇게 학보 기자 4명이 모였다. 18학년 3명, 19학년 1명. 모두 총장 선거를 처음 경험하는 학번이었다. 총장 선거가 뭔지도 몰랐던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떠올렸다. 총장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구성원이 원하는 총장의 리더십은 무엇인지, 또 총장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답을 함께 찾아가자는 마음으로 매주 기사를 썼다.

이번 주까지 총 12개의 총장 선거 기획 기사를 발행했다. 직선제 도입 배경을 돌아보는 기사로 시작을 끊었다. 총장 선거 취재 팀원들처럼 직선제가 도입된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구성원에게 당시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2017년도 투표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학보와 일간지 기사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살펴하며 이화의 역사를 짚어갔다.

다음으로 대학 총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뤘다. 학생, 교수, 교직원, 동창, 학내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원하는 총장상을 물었다. 원하는 총장상과 강조하는 현안은 제각각이었다. 구성원들과 학내 현안을 주제로 소통하며, 학교는 어느 누구만의 것도 아닌 모두를 위한 공간임을 느꼈다.

입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에는 후보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총장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수집했고, 각 후보자들에게 전했다. 답변 속에는 후보자 각각의 비전과, 그들이 그리는 이화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소견서를 바탕으로 후보자들의 공약 분석도 시도했다. 구성원들이 제시한 학내 현안에 후보자들이 어떤 답을 제시했는지를 봤다.

매주 총장 선거 기사가 쌓일수록, 내가 행사할 한 표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 표가 결정지를 이화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기대되기도 했다. 학보에서 총장 선거 기사를 쓰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민을 했을까. 아마 이 한 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내게 주어진 것인지 애써 찾아보지 않았을거다. 또 총장 투표가 이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하지 않았을터였다.

투표는 단순히 이화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교수, 교직원, 동창, 학생, 학내 노동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품 담고 있는 이화의 미래를 결정하는게 총장 투표다. 표를 던지기 전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 등을 잘 살펴보고, 한 표 한 표에 의미를 담아야 하는 이유다.

학생 정보제공동의 결과에 책임감을 느끼며 마음이 무겁다. 구성원들에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 또한 대학 언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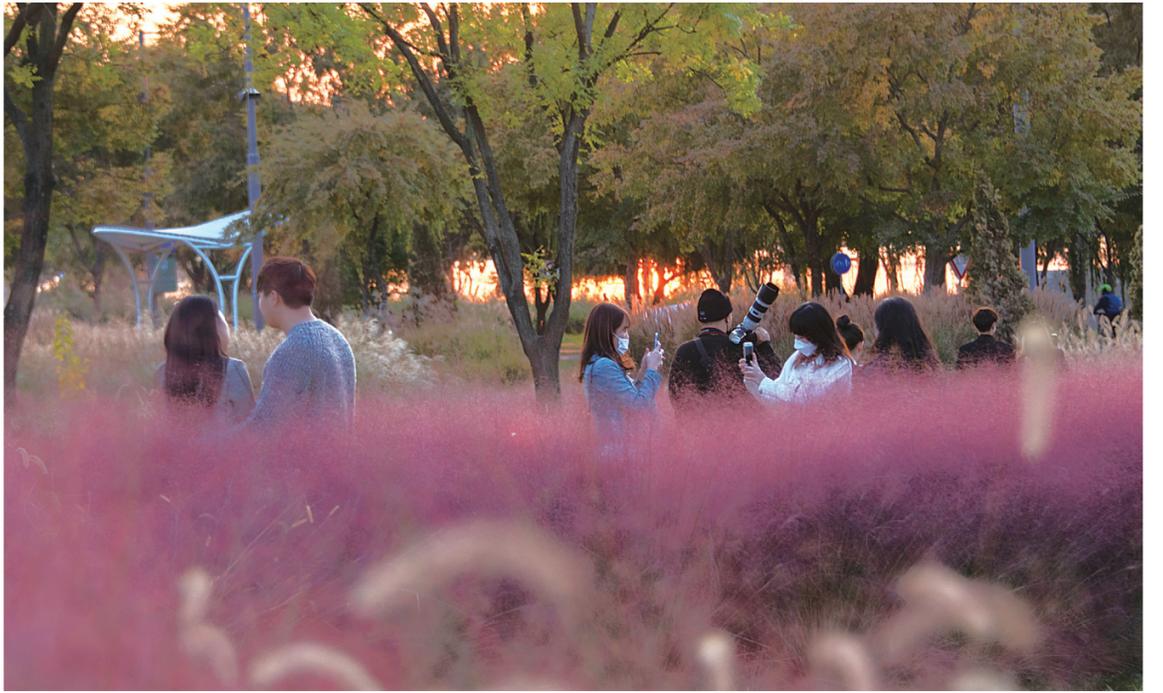
투표율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투표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맡은 역할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 구성원들이 던질 한 표에 의미를 싣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장 선거 레이스 끝까지 함께 하겠다.

■ 사진부 칼럼

가을을 분홍빛으로 물들인 식물 사이로, '인생샷'을 찍기 위해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보인다. 노을빛 아래 은은한 분홍빛을 뽐내는 이 식물은 핑크 물리 그라스(핑크 물리)이다. 미국에서 온 외래종 핑크 물리는 국립생태원

에서 '생태계 위해성 2급'을 받았다. 아름다운 조경을 위해 심은 이 핑크 물리는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핑크 물리가 아니라도 아름다움을 위해 환경,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다. 누군가는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희생된다. 아름다움은 파괴를 통해서만 나오는 걸까? 나의 만족을 위해 파괴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잡겨본다.  
이희운 기자 hannah101142@ewhain.net



■ 여론광장

# 전염병과 일회용품의 아이러니

김수지 간호·15

코로나19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중국인들이 야생 박쥐를 먹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기 때문일까. 이 중 무엇도 아닌, 사람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했기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저명한 학자이자 분교 석좌교수인 최재천 교수의 견해다. 최근 'SBS 날이지' 유튜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말하다' 프로그램에서 최재천 교수와 제인 구달 박사의 대담이 방영됐다. 동물행동 연구가이자 환경 보호가인 두 분은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인 팬데믹이 올 상황을 경고했었다. 코로나19를 예견했던 모양이다.

코로나19는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이고, 자연을 경시하고 동물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인간의 무분별한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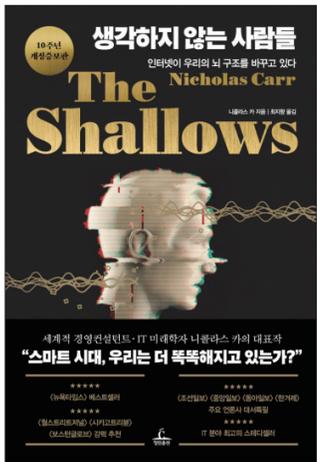
파괴는 동물의 서식지를 뺏았고, 동물들은 살 곳과 먹이를 찾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사는 곳 가까이 왔다. 지구온난화는 기후 변화를 야기해 박쥐를 비롯한 여러 동물의 서식지를 빼앗았다. 결국, 동물이 사람에게 병을 옮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동물에게서 병을 가져온 셈이다.

이렇듯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가 가져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집 앞 카페를 가면 일회용품을 남발한다. 컵을 씻어서 다시 쓰면 바이러스 전염의 여지가 있다며 일회용 컵을 쓰고 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원 사용과 쓰레기 양산으로 동물들이 갈 곳을 잃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전염병에 걸릴까 무서워 모든 물품을 한 번 쓰고 버리고 있다. 어디 카페뿐인가. 비대면 시대로 배달 음식 붐이 일었고, 포장 용기는 죄다 일회용이다. 잘 씻어서 재활용으로 버리면 모를까, 대부분 사람들은 씻어서 버려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인류에 종말이 올지도 모르겠다. 대대적인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거나 더 이상 자원이 없어 인류마저 서식지를 잃고 멸망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제인 구달 박사는 자신이 아끼는 침팬지들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가령 플라스틱 용기 대신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달라고 하는 것부터 해보면 어떨까.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거절하는 일도 괜찮다.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부터'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금주의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니콜라스 카 지음 / 청림출판 / 2020

저자인 니콜라스 카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탄생으로 압축되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인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그로 인한 폐해까지도 날카롭게 짚어 내기로 유명

한 IT 미래학자입니다.

이 책의 초판이 나온 후 정확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인류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익숙함의 이면에는 우리의 뇌가 몹시 산만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내재해 왔습니다.

저자는 이번 개정판을 통해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우리의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신경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강한 어조로 변화를 촉구합니다.

인터넷은 집중해 깊이 읽고, 사고를 확장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뇌를 혹사시켜 지속적인 산만함을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온라인에서 습득된 스캐닝 하는 방식의 텍스트 읽기와 멀티태스킹으로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사각 사각 종이 책장을 넘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책/  
612.80285 C23s한 2020

■ Z의 시선

# 능동적 소비의 주인공, Z세대

서리경 중문·19

Z세대들은 자신에게 특이 되는 경험을 소유하는 것에 의미를 두며,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효율을 추구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오래된 정서에 머무르는 '라떼'처럼 한 가지만을 선호하기보다,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짧게나마 이용해보는 것을 선호한다. 현재 가진 물건이 내 욕구를 충족시킬 최종의 결과물이라기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잠시 경험하는 물건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Z세대들은 무언가에 관심을 갖는 동안 소유 욕구가 충족되고, 사용 후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제공받았다면, 다른 관심 분야의 욕구를 찾아 나선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최우선시해, 비효율적인 것은 최소화하려는 자세가 반영된 모습이다.

효율보다 가치가 우선시되기도 한다. 명품을 구매하는 것과 '인스타 감성'의 맛집, 카페를 찾아가는 경우가 그렇다. 전자의 경우 가치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명 '기세'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세련된 공간에서 기록한 사진이 타인의 주목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맛이 조금 없더라도 가치가 생긴다.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은 많아졌으나, 그만큼 정보도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 자신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소비다. 이러한 소비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의 요소로 작용하게 됐고, 한정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다양한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콘텐츠를 소비할 때, Z세대들은 댓글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특정 영상에 달린 웃긴 댓글을 모아 보여주는 콘텐츠가 인기

를 끌고 있다. 웃음이라는 코드로 타인의 공감대를 얻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놀이 문화를 창조해가는 것이다. 가수 비의 '깡' 뮤직비디오에 달린 댓글 중,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할 점을 제치 있게 담은 '시무 20조'는 화제가 돼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의 '숨어 듣는 명곡'이라는 콘텐츠에서도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Z세대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그들은 기획자의 일환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며 콘텐츠 소비를 즐긴다.

Z세대들은 빠른 트렌드에 발맞춰 가면서도, 유행을 선도한다. 자신이 소비하려는 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한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측에서 Z세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표현의 장을 마련해줄 때 시너지는 일어난다. 앞으로 Z세대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소비하길 기대한다.